

출처 불명 득표를 문자... 후보별 유불리 입장 '제각각'

“악의적 유포 수사의뢰를”... “중앙당이 결정할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별 득표율 문자메시지가 확산한 것과 관련, 각 후보 진영이 이해득실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형배 후보는 21일 광주 서구 마죽동 경선준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 할 경선이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얼룩지고 있다”며 “각 후보의 정확한 득표율 공개와 허위 문자를 작성·유포한 배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후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 득표율 수치가 담긴 문자가 광범위하게 살

포됐다”며 “제 득표율을 3분의 1 수준까지 낮춰 악의적으로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예비경선 결과 비공개 원칙 재논의와 공식 득표율 공개를 요구했다.

주철현 후보 측도 “괴문서 속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간 차이가 있었다”며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로 인해 특정 후보의 등수가 고착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의뢰를 통해 유포자를 찾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경선 득표율 공개는 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공개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강기정 후보 측은 “각 캠프별로 확인한 개별 득표율과 여러 버전의 문자를 통해 당심은 어느 정도 확인됐을 것으로 본다”며 “이에 맞춰 민심을 겨냥기 위한 본경선 전략 마련을 고심 중”이라며 득표율 공개 여부와 수사 의뢰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신정훈 후보 측은 “공개·비공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명확한 만큼 공개 여부는 중앙당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당규와 관례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경선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후보 측은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들 간의 예비경선(권리당원 100% 온라인투표)을 모두 마친 뒤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 유튜브 생중계로 결과를 발표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며 기호 3번 정준호 후보가 탈락하고 1번 김영록, 2번 강기정, 4번 주철현, 5번 신정훈, 6번 민형배 예비후보 등 5명이 본경선(4월3~5일)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공표 시간 전후로 각 후보별 득표율이 명시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번졌으며 캠프 관계자와 당원, 지지자들이 이를 ‘받은 문자’로 또 다른 곳에 재전송하면서 해당 문자는 삼시간에 확산됐다.

뉴스시스



21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기·박병규·차승세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성과나 책임이나” 광주 광산구청장 민 경선 3파전 공방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연설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들이 합동연설회에서 현직의 성과와 행정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도전자인 박수기 후보가 ‘하남산단 오염수’ 문제를 두고 현직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박병규 후보는 이에 맞서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하며 방어했다. 두 후보간 공방 속에 차승세 후보는 ‘새로운 리더’를 자처하며 차분히 존재감을 부각했다.

박수기·박병규·차승세 후보는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광산구 현안과 발전 방향을 두고 맞붙었다.

첫 연설자로 나선 박수기 후보는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꺼내 들었다.

그는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 수백 배를 초과한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며 “행정이 외면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자신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숨기는 행정이 아니라 설명하는 행정, 미루는 행정이 아니라 책임지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구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통합 특별시의 성과는 일자리와 소득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광산구를 산업·교통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직인 박병규 후보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도전자에 공격을 방어했다.

박병규 후보는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와 민·군 공항 통합 이전 합의, 어

등산 관광개발 등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면서 “광산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행정의 답은 실적이다. 주민의 불편과 요구를 정책으로 바꿔 결과로 증명했다”면서 “지금 광산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대를 놓지 않고 성과를 완성하겠다”고 연속성과 안정적 구정 운영을 주장했다.

차승세 후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차 후보는 “지방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고, 구호가 아니라 성과여야 한다”며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응답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산은 더 이상 변방이나 배드타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 행정 도입,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도농 균형 발전 등을 제시했다. 또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행정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며 실무형 행정이 이미지를 내세웠다.

세 후보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광산구의 역할을 두고도 각기 다른 구상을 내놨다. 박수기 후보는 산업·교통 중심지로의 도약, 박병규 후보는 기존 성과를 기반으로 한 발전, 차 후보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 구축을 각각 강조했다.

광산구청장 경선은 24~26일 1차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ARS+안심번호 여론조사)으로 치른다. 3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인 결선 투표로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김준행 기자

안정적 구정운영 vs 변화·추진력... 광주 동구청장 적임자는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 경선 연설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경선 후보들이 합동연설회에서 구정 성과와 변화 필요성을 두고 맞붙었다.

현직인 임택 후보는 안정적인 구정 운영과 성과 지속을 강조한 반면, 도전자인 진선거·노회용 후보는 상권 침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선거·임택·노회용 후보는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동구의 현 상황과 발전 방향을 놓고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첫 연설자로 나선 진 후보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의 인연을 내세우면서 ‘힘 있는 구정장관’을 펼쳤다.

그는 “힘 있는 구정장이 되어 예산을 가져오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춰 동구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로 일대 공실이 30%를 넘는 등 동구는 심각하게 침체돼 있다”며 현 상

황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현직인 임택 후보는 재임 성과를 내세워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앞두고 ‘안정론’을 강조했다.

임 후보는 “행정통합 대변화의 시다. 연합할 시간이 없고 시행착오를 감수할 여유도 없다”며 “정책을 성과로 완성할 수 있는 검증된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다. 청년 비율 상승, 출생률 1위 등 변화와 희망의 도시로 전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회용 후보는 행정 경험을 앞세워 교체 필요성을 부각했다. 노 후보는 “도시는 멈추면 쇠퇴하고 동구는 지금 정체돼 있다. 지금은 행정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을 해본 사람이 조직을 이끌고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모두 자신이 ‘검증된 후보’임을 내세우며 적임자 경쟁을 벌였다. 임 후



21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임택·진선거·노회용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

보는 행정 성과와 경험을, 노 후보는 과거 구청장과 행정 경험을, 진 후보는 정치적 네트워크와 추진력을 각각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구정에 대한 우회적 비판도 이어졌다. 진선거·노회용 후보는 동구의 침체와 정체를 언급하며 변화 필요성을 부각한 반면, 임 후보는 성과를 강조하며 도전자들을 향해 “연승에게 말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세 후보는 특히 행

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동구를 이끌 적임자를 두고도 시가지를 보였다.

임 후보가 안정적인 구정 운영과 성과 지속을 강조한 반면, 진 후보와 노 후보는 변화와 추진력을 앞세워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선에서는 노회용·진선거 후보 간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면서 향후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오철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현직 후보는 구정 성과와 행정 연속성을 부각한 반면, 도전자는 검증이 필요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이강·조승환 후보는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구정 발전 방향을 두고 맞붙었다.

먼저 연설에 나선 현직 구청장인 김이강 후보는 민선 8기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행정이 바뀌고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복지가 달라졌다. 신속한 민원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등 변

민서구청장 경선 ‘행정 연속성’ vs ‘후보 검증’ 공방

화가 일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을 두 차례 수상하는 등 서구가 대한민국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4년이 변화를 만든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이를 완성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의 시대를 준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금 할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연속성과 안정적 구정 운영을 강조했다.

도전자인 조승환 후보는 33년 서구 공

직 경력을 내세워 풍부한 현장 경험과 체감 행정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조 후보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지금 당장 삶이 바뀌는 행정이 필요하다. 서구를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행정 실무부터 정책 결정까지 모두 경험한 준비된 후보”라고 자신의 강점을 소개했다.

또 “통합 특별시를 이끌 자치구 수장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후보 간 도덕성과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네거티브가 아니다”며 앞서 김 후보가 성 비위의혹으로 고소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을 예들려 언급했다. 김 후보는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네거티브 공세”라며 반박한 바 있다.

연설이 끝난 직후에도 두 후보 지지자들이 장외 응원전을 펼치며 치열한 경선 맞대결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서구청장 경선은 24~26일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ARS+안심번호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석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최 |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광안문화관광재단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026 4.4. (토) - 4.12. (일)

왕인문화축제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상대포 일원

위대한 항해